

청정진안 만들기 '순항 중'

클린하우스 138개 마을 운영... 재활용품 회수율 매년 50% 증가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과 함께 클린하우스 설치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회수 등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클린하우스는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한층 쉽고 편리한 분리배출 방법을 통해 자원 회수의 극대화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38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시각적인 교육·홍보·체험을 병행할 수 있어 생활폐기물 배출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에 진안군 재활용품 회수율이

2014년부터 매년 50%가 증가된 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지속적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를 통해 310개 전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6년도 행정부 특별교부세 6억 확보에 이어 올해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5,000만원 확보와 함께 내년부터는 환경부의 재활용동네 마당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며 직·소각·매립 시에는 도시사가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폐

기물처분 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정부의 자원순환사회 조성사업 지원에 소요될 기금을 조성한다.

진안군은 그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과 지킴이 인건비를 비롯해 무주·진안광역쓰레기전처리시설 운영비 등 자원회수사업에 소요되는 자체예산이 기금을 통해 2019년도부터는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으로 자원회수를 증가와 함께 농촌생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 또한 아주 높다"며 "앞으로도 클린하우스를 지속 확대 설치하고 관련예산도 적극 확보해 깨끗한 진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항로 군수는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으로 자원회수를 증가와 함께 농촌생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 또한 아주 높다"며 "앞으로도 클린하우스를 지속 확대 설치하고 관련예산도 적극 확보해 깨끗한 진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항로 군수는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으로 자원회수를 증가와 함께 농촌생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 또한 아주 높다"며 "앞으로도 클린하우스를 지속 확대 설치하고 관련예산도 적극 확보해 깨끗한 진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안 안천 하수처리장 약취 20년 만에 해결

'보한골 하수처리장 이설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은 4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 공모사업 평가에서 안천면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인 '보한골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한골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기금 8억, 군비 4억)을 투입해 20년이 넘는 보한마을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안천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여 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용담댐 수물로 용담댐 상류에 이주

단지를 조성하면서 1997년부터 형성된 안천면 보한마을은 마을 안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날씨가 흐리거나, 댐에서 마을로 바람이 불 때면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다.

보한골 하수처리장은 94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 내, 용담호소와 직선거리 200m 내에 설치되어 있고 199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노후된 시설로 소음과 악취로 주민의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94세대 200여 명 주민들이 20년이 넘는 노후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나 20년 가까운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항로 군수는 "마을 안에 위치하고 20년이 넘는 노후된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마을 안에 위치하고 20년이 넘는 노후된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광장 성탄 탐 점등행사

4일 무주군청 광장에서는 무주군의 겨울철 명물로 자리잡은 대형 성탄트리 점등식이 개최됐다.

무주군 기독교연합회와 군청 선교회 주관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백경태 도의원, 그리고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점등식에 앞서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성탄메시지 선포와 특별찬양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곧 점등될 성탄트리와 함께 밝아질 우리의 마음이 날로 활짝해지는 사회를 보며

고 강박해지는 서로를 다독이는 온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불빛으로 모여져 우리 군 전역을 밝히면 무주가 더 돈독해지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앞당기는 힘도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청 분수대에 설치된 대형트리 는 높이 9m, 둘레 24m의 철재 빔 원추 형태로, 지난 99년부터 겨울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객불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훈훈함을 전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되고 있다.

이날 점등된 무주군 성탄트리는 내



4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대형 성탄트리 점등식이 개최됐다.

년 1월 말까지 무주군 전역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는 모두 무주군민입니다'

군, '역지사지 어울림 한마당' 개최

무주군은 4일 태권도원 도약센터 대강당에서 '역지사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무주군이 주관하고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마당극과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극단 '물꼬' 단원들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과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열연한 '김치 같은 사랑'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와이드컴퍼니 박근아 대표를 초빙해 진행한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강연도 유익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귀농·귀촌인 김모씨(52세)는 "마당극 내용처럼 김치 양념 버무리기 갖듯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울려 사는 게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며 "무주가 좋아서 들어왔고 무주가 좋아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만큼 나

부터 한발짝 더 다가서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60)씨는 "서로 마음이 그거 아는데 지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그런 것 같다"라며 "이제는 곁에 있는 이웃이고 함께 사는 무주군민이라는 마음으로 잘 보듬어서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무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현재 1,12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올해 총 32가구에 집들이 비용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지원(5,100만원)했다.

이외에도 3억 2,000여 만원을 들여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세부사업 박람회 참가, 도시민 상담, 수도권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농촌 정착을 사전에 체험해볼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도 추진해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사랑의 딸감 나누기 행사

36가구에 딸감 108톤 지원

장수군은 최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6가구에 대해 난방용 딸감 108톤을 지원하는 '사랑의 딸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공공산림기부기사업으로 수집한 산림부산물들을 장수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산불전문진화대와 공무원이 힘을 합쳐 딸감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해줘 이웃 간 훈훈한 정을 나눴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최용득 군수는 이 행사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딸감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지역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매아리

장수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장수군 안전재단과 장수군 자율방재단이 공동으로 주관, 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수군 안전재단과장 및 직원, 읍·면 담당자를 비롯한 자율방재단원 140여명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방재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해 재난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앙 EFR(Emergency First Response)교육센터 김성욱 강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지진대피 강의, 현대해상에서 풍수해보험 교육 및 홍보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 안전재단과 김동현 재해대책팀장이 방재단 현황 및 겨울철, 2018년도 협조사항을 전달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권동주 장수군 자율방재단장은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등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 안전재단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각종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올해 활동에 대한 방재단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겨울철 대설 시에는 신속한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진안군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이 합동으로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에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시퇴근을 통해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매월 2회 '가정의 날'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제외, 임산부 전용 의자 지원, 산모휴게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최고경영자와의 대화' 실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	